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05)(10/27/2022)

제 3 권 내적 위로

55 장 본성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5-6 절

마 5:3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 66:13 -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 40:1 -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후 1:4 -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 30:20-21 -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5. 오, 지극히 복된 은혜여,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미덕에 있어서 부요한 자로 만들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부자를 마음이 겸손한 자로 만듭니다. 은혜여, 날이 밝자마자 속히 내게 오셔서, 주의 위로로 나를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내 영혼이 지치고 메말라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본성이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주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고후 12:9). 내가 많은 환난을 겪으며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한, 나는 그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시 23:4). 오직 이 은혜만이 나의 힘이고, 오직 이 은혜만이 나의 조연자이고 조력자입니다. 이 은혜는 나의 모든 원수들보다 더 힘 있고,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6. 이 은혜는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고, 나를 훈육시키는 선생이며, 내 마음의 빛이고, 마음이 놀릴 때에 나의 위로가 되어 주며, 내게서 슬픔을 몰아내어 주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며, 나의 신앙과 경건을 잘 자라게 해 주고, 나로 하여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내게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밖에 내버려야 마땅한 마른 나무일 뿐이고 앙상한 가지일 뿐입니다(요 15:6). 그러므로 주여, 주의 은혜가 나의 앞뒤를 늘 호위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온갖 선한 일들에 착념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해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은혜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낮아진 사람이 고통에만 빠져들기 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 인한 만족감 때문이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짜릿한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금세 사라지고 우리는 또다시 내적인 목마름에 힘들어 하고 밀려오는 허무감을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내면 깊은 곳에서의 평안과 행복감을 누리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내면적 가난을 의미한다. 내면적 가난은 나에게 물질이 풍부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떠나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그 상태는 물질을 비롯한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며 의지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것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부해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해 질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된다. 하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 아울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씀은 종말론적 의미와 함께 지금 이미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미 내면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이며 은혜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오늘을 산다. 주님의 은혜는 삶 속에서 힘들어 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다가온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다. 사 66:13 -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르쳤다. 고후 1:3 -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위로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힘들어 할 때 위로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 그 위로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다. 사 40:1 -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후 1:4 -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다. 사 30:20-21 -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으로 불리셨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일 것이다. 눅 7:40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눅 20:39 -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대 하니.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 행 8 장에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만나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 행 8:26, 29, 35 - 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게 하신다. 마 28:20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정의와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3.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콜럼비아개혁신학교와 고석훈 선교사님, 콜럼버스하우스(노숙자 사역), 햄튼고등학교, IRIS(난민사역), OMSC, GMLF 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